

의존명사 ‘둥’/‘뒹’ 반복 구성체의 공통점과 차이점

다카치 토모나리[†]

천리대학교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Repetitive Constructions with the Bound Nouns *twung* and *tus* in Korean

Tomonari Takachi[†]

Tenr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functional-semantic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repetitive constructions with the bound nouns *twung* and *tus* in Korean. It is common to both of them that they express both positive and negative polarities at the same time. However, most past research failed to clearly explai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petitive constructions. A few studies have suggested that the repetitive constructions function as epistemic modals. This study intends to solve these problems. Considering the essential meanings of the bound nouns *twung* and *tus* and analyzing example sentences, we reach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repetitive constructions do not function as epistemic modals. This is borne out by the fact that they cannot be used with adverbs such as *ama* and *thullim-epsi*, which communicate a speaker's judgments about the factual status of propositions. 2) Repetitive constructions with *twung* differ essentially from those with *tus* in that the former are not always relevant to the situation expressed by the principal clause. 3) Conversely, the latter always indicate situational relevancy.

Keywords: bound nouns, repetitive constructions, positive, negative, situational relevancy

1. 서 론

이 논문은 의존명사(bound nouns) ‘둥’/‘뒹’을 내포한 반복 구성체(repetitive

* 이 논문은 2021년 10월 3일에 열린 Chosen Gakkai(일본, 나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초고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읽고 논평하여 주신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Corresponding author: t-tomo@sta.tenri-u.ac.jp



constructions)¹⁾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둥’ 반복 구성체(‘-(으)ㄴ 둥 만 둥’, ‘는 둥 마는 둥’, ‘-(으)ㄴ 둥 말 둥’)와 ‘뒹’ 반복 구성체(‘-(으)ㄴ 뒹 만 뒹’, ‘는 뒹 마는 뒹’, ‘-(으)ㄴ 뒹 말 뒹’)는 동일 의존명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관형사형 어미(adnominal endings)와 [부정]의 용언 ‘말다’를 내포한다는 구조적 공통점을 가진다.

An(2001)과 I(2009)에 의하여 의존명사 ‘둥’/‘뒹’의 의미는 잘 밝혀졌다²⁾. 그러나 그것이 ‘둥’/‘뒹’ 반복 구성체의 기능과 의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선행연구는 ‘둥’/‘뒹’ 반복 구성체 간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Han(2009)에서는 ‘둥’/‘뒹’ 반복 구성체가 표현하는 내용을 아래의 (1a) 및 (1b)와 같이 설명하였다. 그런데 ‘둥’/‘뒹’ 반복 구성체가 의미적으로 비슷함은 알 수 있지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³⁾.

(1) a. 【‘둥’ 반복 구성체】

‘둥1’ 앞에 놓인 내용과 ‘둥2’ 앞에 놓인 내용을 하는 듯하기도 하고 하지 않는 듯하기도 함. (Han, 2009, p. 61)

b. 【‘뒹’ 반복 구성체】

‘뒹1’ 앞에 놓인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 ‘뒹2’ 앞에 놓인 내용일 것 같기도 함. (Han, 2009, p. 71)

‘둥’/‘뒹’ 반복 구성체는 매우 유사한 의미를 표현하여 “비가 오는 {둥/뒹} 마는 {둥/뒹} 하고 있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교체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맥도 있다. 이들의 구성체는 의존명사 ‘둥’과 ‘뒹’이 변별(辨別)되기 때문에 기능과 의미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겠다. 이 논문에서는 구조적으로 비슷한 ‘둥’/‘뒹’ 반복 구성체 간의 공통점을 밝히고, 또한 의존명사 ‘둥’/‘뒹’의 의미 차이를 근거로 ‘둥’/‘뒹’ 반복 구성체 간의 차이점도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둥’/‘뒹’ 반복 구성체의 구성 요소를 개관한다. 둘째, 『21세기 세종계획 최종성과물』의 말뭉치 프로그램(이하 『세종 말뭉치』)을 통하여 수집한 ‘둥’/‘뒹’ 반복 구성체의 예문을 분석한다. 이

1) ‘반복 구성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해당 구성체들이 의존명사 ‘둥’/‘뒹’을 두 번씩 반복시키는 공통 특징을 가진다는 점과 ‘둥’/‘뒹’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당 구성체들 간의 차이를 살펴본다는 본고의 취지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2) 의존명사 ‘둥’/‘뒹’의 의미에 대하여는 2.1에서 살펴보겠다.

3) Im(2020)은 ‘둥’ 반복 구성체의 의미는 [불확실(불안정)]이고 ‘뒹’ 반복 구성체의 의미는 [불확실(추측)]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둥’/‘뒹’ 반복 구성체 간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에는 부적절하다. 두 의미 사이의 유사함은 알 수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불확실(불안정)]과 [불확실(추측)]의 용어는 양태(modality)를 연상(聯想)시키지만 ‘둥’/‘뒹’ 반복 구성체가 양태를 표현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분석을 통하여 ‘둥’/‘뒹’ 반복 구성체의 기능 특성을 알아본다. 셋째, 예문을 근거로 ‘둥’/‘뒹’ 반복 구성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한다. 넷째, 고찰 결과를 정리한다.

이 논문에서는 『세종 말뚝치』를 통하여 수집한 예문을 근거로 논의한다. 그러나 논의에 적합한 예문을 찾지 못하였을 때에는 한국어 원어민의 협조를 받아 만든 예문을 제시하기로 한다.

2. ‘둥’/‘뒹’ 반복 구성체의 구성 요소

2.1. 의존명사 ‘둥’/‘뒹’

여기에서는 의존명사 ‘둥’과 ‘뒹’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에서 편집한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의 기술과 선행연구의 견해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1. ‘둥’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한 의존명사 ‘둥’의 해설(解説)은 아래의 (2a, 2b)와 같다. 이중 (2a)의 해설이 ‘둥’ 반복 구성체에 해당한다.

(2)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한 ‘둥’의 해설

- a. (‘-은/는/을 둥 만/마는/말 둥’ 구성으로 쓰여) 무슨 일을 하는 듯도 하고 하지 않는 듯도 함을 나타내는 말.

예: 얼굴을 본 둥 만 둥 그냥 지나간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수저를 내려놓는다.

이야기를 할 둥 말 둥 망설인다.

- b. (‘-다는/나는/라는/자는 둥 -다는/나는/라는/자는 둥’ 구성으로 쓰여) 이렇다거나 저렇다거나 하며 말이 많음을 나타내는 말.

예: 그는 방이 출다는 둥 건조하다는 둥 불만이 많았다.

그는 생선이 싱싱하다는 둥 비싸게 산 것은 아니라는 둥 트집을 잡았다.

이것을 하라는 둥 저것을 하라는 둥 말이 많다.

An(2001)에 따르면 ‘둥’ 자체는 [유사성]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반복 구성체를 이루게 되면 긍정의 내용과 부정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위의 (2a)의 해설 내용과 비슷하다.

I(2009)에 의하면 ‘동’은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을 표현하는 하위문(下位文)들을 병렬시켜 표현할 경우에 [어떤 행동과 유사함]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위의 An(2001)과 비슷하다. 그런데 I(2009)에서는 [어떤 행동과 유사함]의 의미는 ‘동’의 확장적인 의미이고, 원형적 의미는 현대 한국어 초기의 의존명사 ‘동’의 쓰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사실]의 의미라고 주장하였다. 아래의 예문 (3a, 3b)에서 ‘동’이 이끄는 부사절은 후행하는 본용언을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다. (3a)에서 밑줄을 그은 부분은 ‘언제 죽을지’의 의미를 표현하고, (3b)에서는 ‘일을 했을지 안 했을지’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이러한 ‘동’의 쓰임이 [어떤 사실]의 의미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 (3) a. 나는 언제 죽을 동 모른다. (I, 2009, p. 180)
 b. 내가 그 일을 했는 동 안 했는 동 모리겠다. (I, 2009, p. 180)

2.1.2. ‘dot’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아래의 (4c)에서 보여주듯이 ‘dot’이 반복 구성체로 쓰이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동시의 표현한다.

- (4)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한 ‘dot’의 해설
- a.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dot’의 준말.
 예: 아기는 아버지를 빼다 박은 dot 닮았다.
 마치 구름을 걷는 dot 도무지 생시가 아닌 것만 같았다.
 지금도 하얀 눈을 보면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dot 느껴진다.
 - b.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dot’의 준말.
 예: 꼬마는 잘 모르겠다는 dot 눈만 껌벅이고 있었다.
 우중충 흐린 하늘은 곧 눈발이라도 세울 dot, 이제 한창 밝은 정월 보름달이 시세를 잃고 있는 밤이었다.
<전상국, 동행>
 - c. (‘-은 dot 만 dot’, ‘-는 dot 마는 dot’, ‘-을 dot 말 dot’ 구성으로 쓰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함을 나타내는 말.
 예: 잠을 잔 dot 만 dot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는 신문을 보는 dot 마는 dot 뒤적거리고만 있다.
 돌탑이 무너질 dot 말 dot 위태로워 보인다.
 - d. (‘-ㄴ dot -ㄴ dot 하다’ 구성으로 쓰여) ‘행동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예: 안타깝게도 수돗물은 나올 dot 나올 dot 하면서도 나오지 않았다.
 영희가 무엇인가 말할 dot 말할 dot 하다가 끝내는 종종걸음 치며

사라졌다.

선혜는 자신과 권오송의 인연을 점치듯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며 이어지는 배 곱질을 바라본다. <박경리, 토지>

An(2001)에서는 ‘덧’을 [추측]의 의미를 가진 의존명사로 취급하였다⁴⁾. 그리고 An(2001)은 ‘덧’이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는 [가식]이나 [비유]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위의 (4a, 4b)에 해당한다.

‘덧’을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한 I(2009)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덧’에는 [유사함]의 의미를 지닌 한자어 ‘若, 如, 似’ 등이 대응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근거로 미루어볼 때 ‘덧’의 원형적 의미는 [유사함]이며 [가식] 및 [비유]와 같은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1.3. ‘둥’과 ‘덧’의 차이점

위에서 ‘둥’과 ‘덧’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선행연구의 견해를 살펴보았다⁵⁾. ‘둥’과 ‘덧’의 의미 차이는 ‘둥’/‘덧’ 반복 구성체 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단서이다. ‘둥’과 ‘덧’의 의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쪽 의존명사에만 찾아볼 수 있는 용법에 초점을 맞추어보고자 한다. 만약에 ‘둥’과 ‘덧’의 의미가 비슷하다면 서로를 대치시켜도 정문(正文)이 되어야 하는데, 아래의 예문 (5a)~(5d)⁶⁾가 보여주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

- (5) a. 그는 방이 출다는 둥 건조하다는 둥 불만이 많았다. (2b)
b. *그는 방이 출다는 덧 건조하다는 덧 불만이 많았다. (非文)
c. 아기는 아버지를 빠다 박은 덧 닮았다. (4a)
d. *아기는 아버지를 빠다 박은 둥 닮았다. (非文)

먼저 (5a)에서 ‘둥’은 ‘-다는 둥 -다는 둥’ 구성체로 쓰여 ‘이렇다거니 저렇다거니 말이 많음’을 표현한다. ‘둥’은 [어떤 사실]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5a)의 경우 ‘둥1’ 앞에 놓인 ‘방이 출다’와 ‘둥2’ 앞에 놓인 ‘건조하다’는 각각 개별적인 상황으로 간주(看

4) ‘-(으)르 듯 싶다’나 ‘-(으)르 듯 하다’와 같이 ‘덧’을 내포한 일부 문법적 언어(grammatical collocation)는 [추측]의 의미를 표현한다. 그런데 ‘덧’ 반복 구성체는 양태의 문법 형식이 아니므로 [추측]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보는 견해에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5) 익명의 심사위원이 ‘둥’은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모양’의 의미로, ‘덧’은 ‘주관화된 내적 심상이나 모양’의 의미로 확대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흥미로운 지적이다. 뒤의 3.1에서 언급하겠지만 ‘둥’은 ‘-는 둥 마는 둥’ 구성체로, ‘덧’은 ‘-(으)르 듯 말 듯’ 구성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둥’/‘덧’의 의미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예문 (5b)는 (2b)에서 ‘덧’이 놓였던 자리에 ‘둥’을 억지로 놓고 만든 것이고, (5d)는 (4a)에서 ‘둥’이 놓였던 자리에 ‘덧’을 억지로 놓은 것이다.

做)된다. ‘등1’ 및 ‘등2’ 앞에 각각 놓인 내용은 후행절인 ‘불만이 많았다’가 의미하는 ‘불만’의 구체적 사례를 나열한 것이다. 한편 (5b)의 경우는 ‘듯’을 억지로 놓은 결과 ‘듯1’ 및 ‘듯2’가 이끄는 두 개의 선행절 내용(‘방이 춥다’와 ‘건조하다’)과 후행절 내용(‘불만이 많았다’) 사이에 유사(類似) 관계가 형성되어 상당히 어색하다.

다음으로 (5c)에서는 선행절 내용(‘아버지를 빼다 박았다’)과 후행절 내용(아버지를 닮았다)이 유사 관계로 연계(連繫)된다. 이때 ‘듯’이 가진 [유사함]의 의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사함]의 의미는 비교되는 두 가지 내용(선행절 및 후행절 내용)을 동일 사태를 표현하기 위한 두 개의 유사 표현으로 간주시킨다. 만약 (5d)가 정문이 되어야 한다면 ‘등’이 선행절 내용과 후행절 내용을 유사 관계로 연계시키는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는데, ‘등’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

(5b, 5d)가 비문(非文)이 된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등’에는 [어떤 사실]의 의미가 있지만 ‘듯’은 그렇지 않다. 둘째, ‘듯’에는 [유사함]의 의미가 있지만 ‘등’은 그렇지 않다. 셋째, ‘등’의 [어떤 사실]의 의미는 ‘등’ 앞에 놓인 내용을 하나의 개별적인 상황으로 간주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편 ‘듯’의 [유사함]의 의미는 ‘듯’ 앞에 놓인 내용(선행절 내용)을 후행절 내용과 연계시켜 유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기능한다. 넷째, ‘등’/‘듯’의 의미에 기인한 차이가 ‘등’/‘듯’ 반복 구성체에 있을 것이다.

2.2. 관형사형 어미

‘등’/‘듯’ 반복 구성체는 구성 요소로 관형사형 어미 ‘-(으)ㄴ’/‘-는ㄴ’/‘-(으)ㄹ’을 내포한다⁸⁾.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에 따라 ‘듯’/‘등’ 반복 구성체가 표현하는 내용에 미묘한 차이가 생긴다⁹⁾. 여기에서는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¹⁰⁾.

우선 시제적(temporal) 의미를 살펴보자¹¹⁾. 예문 (6a)처럼 동사의 어간에 결합할 때 ‘-(으)ㄴ’은 [과거]를 나타낸다. 그런데 예문 (6b)처럼 형용사의 어간에 ‘-(으)ㄴ’이 결합하면 시제적 의미가 애매해진다. ‘는’은 [현재]를 나타낼 수 있다. 예문 (6c)가 이것에 해당된다. 그리고 예문(6d)처럼 [미래]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예문 (6e)와 같이 시제적 의미가 애매해질 때가 있다¹²⁾. ‘-(으)ㄹ’은 예문 (6f)와 같이 [미래]를 표현한다.

7) Ko(2007)와 같이 ‘는’을 ‘느’와 ‘-(으)ㄴ’의 결합체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는’의 의미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는’의 형성 과정은 논하지 않겠다.

8) ‘ㄴ’을 포함한 ‘등’/‘듯’ 반복 구성체는 없으므로 ‘ㄴ’에 대하여는 논하지 않겠다.

9) 이에 대하여는 4.1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10) 관형사형 어미의 문법 범주적 위상을 논한 견해는 다양하나 본고의 주요 취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를 간략히 개관할 정도로만 한다.

11) 시제적 의미에 대하여는 Nam & Ko(1993), Yem(1995), Nakajima(2002) 등을 참고하였다.

12) 예문 (6b)의 ‘-(으)ㄴ’과 (6e)의 ‘는’은 시간 구분을 초월한 상시(常時)적 사태를 표현한다.

- (6) a. 아버지가 만든 음식들이 식탁 위에 놓였을 때 나는 음식들이 참 아름답
다는 생각을 했다. (BRE00075)
b. 예쁜 꽃이 {폄다/핀다/피겠다}. (作例)
c. 지금 하는 일 말고 전에 직업 있었지요? (BRE0308)
d.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5BA01E05)
e. 매일 보는 얼굴인데, 이상하게 집에 와서까지 그녀의 생각이 나다니 정
말 모를 일이었다. (5BE01013)
f. 주호가 내일 만날 장소를 자세히 알려 주었다. (3BG20004)

다음으로 상적(aspectual) 의미를 개관하고자 한다¹³⁾. ‘-(으)ㄴ’은 일부 동사의 어간
에 결합함으로써 [완결된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아래의 예문 (7a)가 이것에
해당된다. ‘-는’에도 상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예문 (7b)의 경우 ‘-는’이 [현재 진행]
을 표현한다. 그런데 예문 (7c)처럼 [반복적 행위]를 표현하기도 한다. ‘-(으)ㄴ’은 예문
(7d)에서 미래 시점에서 발생할 예정인 행위를 말하기 위하여 쓰이기도 한다.

- (7) a. 길상이 손에 든 돌을 던지는데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2BEXXX05)
b. 용정에서 볼 때와 지금 보는 아주머니 모습이 전혀 다르다.
(2BEXXX06)
c. 그건 보일러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예요.
(2BEXXX19)
d. 올해는 3월까지 30억원 정도 받을 돈이 있으며 6월 정산할 때 들어올
예정이다. (7BB03B15)

셋째로 양태적(modal)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¹⁴⁾. ‘-(으)ㄴ’은 [확정적인 사태]를 표
현한다. 화자가 보았을 때 이미 확정적이며 현실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태는 ‘-(으)ㄴ’으
로 표현된다. 이러한 양태적 의미는 위에서 제시한 예문 (6a, 6b, 7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는’은 화자의 입장에서 [현실로 간주하는 사태]를 표현한다. 위에서 제시한 예문
(6c, 6d, 6e, 7b, 7c)에서 사용된 ‘-는’에 이러한 양태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으)ㄴ’은
[비현실]을 표현한다. ‘-(으)ㄴ’의 [비현실]의 특성은 위의 예문 (6f, 7d)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이 의미 특성은 [미래]와 [발생 예정]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ㄴ’의 의미 특성을 정리하
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13) 상적 의미에 대하여는 Chang(1985), I(2001), Nam(2001) 등을 참고하였다.

14) 양태적 의미에 대하여는 I(1995), Pay(2001), Ko(2007), Im(2008) 등을 참고하였다.

표 1.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특성

형태	의미									
	시제적 의미				상적 의미				양태적 의미	
	과거	현재	미래	상시	결과	진행	반복	예정	현실	비현실
‘-(으)ㄴ’	○	×	×	○ ¹⁵⁾	○ ¹⁶⁾	×	×	×	○	×
‘-는’	×	○	○ ¹⁷⁾	○	×	○	○	×	○	×
‘-(으)ㄴ’	×	×	○	×	×	×	×	○	×	○

2.3. ‘말다’

‘둥’/‘뒹’ 반복 구성체는 ‘둥2’/‘뒹2’ 앞에 용언 ‘말다’를 놓는 구성적 공통점을 가진다. 이것은 ‘둥’/‘뒹’ 반복 구성체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말다’의 기본적 쓰임을 개관하고자 한다. ‘말다’에는 본용언, 보조용언, 반복 구성체로서의 쓰임이 있다.

- (8) a. 말로는 걱정을 말라지만 걱정을 안 하게 생겼니? (BRE00093)
- b. 잘된 것만 보도하려 하지 말자. (CH000039)
- c. 너무 섬세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2CE00003)
- d. 산모를 절대로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CH000107)
- e. 학생들이 오거나 말거나 이젠 불안하지 않다. (4BE00003)
- f. 이제 알겠어요. 알고말고요. (BRE00291)
- g. 아이는 듣는 둥 마는 둥, 땡이치기에 정신이 없다. (2BEXXX05)
- h. 살 듯 말 듯 망설이며 넥타이를 만지작거린다. (CJ000248)

위의 예문 (8a)에서는 ‘말다’가 대격조사 ‘-을’을 취하며 ‘그만두다’의 의미를 표현한다. Se(1996)에서는 이러한 쓰임의 ‘말다’를 본용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Chang (2003)이 지적하였듯이 이 쓰임의 ‘말다’는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에서 출현할 수 없다. 통사적 제한이 많아 일반적 본용언과 다르다.

I & Chay(1999)가 지적하였듯이 ‘말다’가 보조용언으로 쓰였을 때는 청유문과 명령문에 나타나며 [부정]의 의미를 표현한다. 위의 예문(8b, 8c)가 이에 해당한다. 예문(8d)처럼 [의무]를 표현하는 문법적 언어(grammatical collocation)¹⁸⁾ ‘-(아/어)야 하다’

15) ‘-(으)ㄴ’의 [상시]의 의미는 ‘-(으)ㄴ’이 형용사의 여간에 결합한 경우에만 나타난다.
16) ‘-(으)ㄴ’이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는 ‘있다’나 ‘달다’ 등 [결과성]의 의미 자질을 갖춘 동사의 여간에 결합하여야 한다.
17) ‘-는’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미래 시점에서 어떤 사태가 이루어짐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18) Im(2008)에 따라 문법 요소와 어휘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사적 구성체를 문법적 언어(grammatical

가 후행하는 경우도 ‘말다’가 보조용언으로 쓰이며 [부정]의 의미를 표현한다¹⁹⁾.

Chang(2003)에 의하면 반복 구성체에 쓰인 ‘말다’에는 [부정]의 의미가 남아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였다²⁰⁾. 위의 예문 (8e)의 반복 구성체에서 쓰인 ‘말다’에는 [부정]의 의미가 남아 있지만, 예문 (8f)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예문 (8g, 8h)가 보여주듯이 ‘둥’/‘뒹’ 반복 구성체에서 쓰인 ‘말다’에는 [부정]의 의미가 남아 있다. ‘둥’/‘뒹’ 반복 구성체가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은 ‘둥1’/‘뒹1’ 앞에 놓인 내용과 상반(相反)된 내용이 ‘둥2’/‘뒹2’ 앞에 놓인 ‘말다’의 의미([부정])에 의하여 표현되기 때문이다²¹⁾.

3. 예문에 대한 계량적 분석

3.1. 예문 개수

‘둥’/‘뒹’ 반복 구성체가 쓰인 예문을 추출하기 위하여 『세종 말뭉치』를 활용하였다. 원시말뭉치 파일 총 1,297개에 수록된 총 1,548,795개의 문장(총 36,659,175개의 어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둥’ 반복 구성체가 쓰인 예문은 총 136개를 찾았고, ‘뒹’ 반복 구성체가 쓰인 예문은 총 148개를 찾았다²²⁾. 그 내역(內譯)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여주듯이 ‘둥’/‘뒹’ 반복 구성체는 관형사형 어미를 내포한다. 그런데 ‘둥’ 반복 구성체는 주로 ‘-는’과 결합한 ‘-는 둥 마는 둥’ 구성체로 사용되는 반면, ‘뒹’ 반복 구성체는 ‘-(으)르’와 결합한 ‘-(으)르 뒹 말 뒹’ 구성체로 많이 사용된다는 경향적 차이가 있다.

collocation)라고 부르기로 한다. 문법적 연어는 표면적으로 통사적 구성체의 모습을 가지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의 단어처럼 특정한 문법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19) 청유문과 명령문 그리고 ‘-(아/어)야 하다’의 의미적 공통점은 행위주(agent)를 대상으로 어떠한 구속력(拘束力)을 작용시킨다는 데에 있다. 즉, 의무양태(deontic modality)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20) Chang(2003)에서는 ‘-자마자’, ‘-다마다’, ‘-고말고’ 등 반복 구성체에서 쓰인 ‘말다’를 어휘적 의미가 없고 반복 구성의 빈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보고 있다.

21) 익명의 심사위원은 ‘둥’의 [어떤 사실]의 의미와 ‘말다’의 [부정]의 의미가 서로 조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이것은 필자의 생각과 다르다. ‘말다’는 ‘둥2’에 선행하지만 ‘말다’의 작용 대상은 ‘둥2’의 사실성이 아니라 ‘둥1’ 앞에 놓인 명제 내용이다. 가령 “비가 오는 둥 마는 둥 내린다”의 경우, ‘둥1’에서는 ‘비가 내리는 사실’을 표현하고 ‘둥2’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사실’을 표현하기 때문에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을 동시에 표현한다.

22) 총 36,659,175개의 어절을 대상으로 검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둥’/‘뒹’ 반복 구성체가 쓰인 예문을 284개밖에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 예문의 내역

구분	형태	개수	소계	합계
‘둥’ 반복 구성체	‘-(으)ㄴ 둥 만 둥’	8개	136개	284개
	‘-는 둥 마는 둥’	123개		
	‘-(으)ㄴ 둥 말 둥’	5개		
‘뚫’ 반복 구성체	‘-(으)ㄴ 뚫 만 뚫’	7개	148개	
	‘-는 뚫 마는 뚫’	16개		
	‘-(으)ㄴ 뚫 말 뚫’	125개		

위와 같은 경향적 차이는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 간의 의미적 친화성(親和性)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2.1 및 2.2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둥’이 ‘-는 둥 마는 둥’ 구성체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둥’이 가진 [어떤 사실]의 의미와 ‘-는’이 가진 [현재, 현실]의 의미가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둥’의 [어떤 사실]의 의미는 2.1.1의 예문 (2b)에서 제시한 ‘다는/냐는/라는/자는 둥 -다는/냐는/라는/자는 둥’ 구성체에서 사용될 때 잘 확인할 수 있다. 이때도 ‘둥’은 ‘-는’과 함께 사용된다. ‘다는/냐는/라는/자는 둥 -다는/냐는/라는/자는 둥’ 구성체는 화자가 듣거나 보거나 하면서 경험한 [어떤 사실]을 열거하며 말할 때 잘 사용된다는 특성상 [현재, 현실]의 의미를 가진 ‘-는’과 친화성이 높다. ‘둥’ 반복 구성체에서 사용되는 ‘둥’에도 [어떤 사실]의 의미가 남아 있으며 ‘-는 둥 마는 둥’ 구성체로 사용되는 경향성이 높은 것이다.

한편 ‘뚫’이 ‘-(으)ㄴ 뚫 말 뚫’ 구성체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뚫’이 가진 [유사함]의 의미와 ‘-(으)ㄴ’이 가진 [미래, 예정, 비현실]의 의미가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2.1.2의 예문 (4d)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행동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임’의 뜻을 표현할 때는 ‘-(으)ㄴ 뚫 -(으)ㄴ 뚫 하다’ 구성체로 사용되며 ‘-(으)ㄴ’만이 ‘뚫’과 공기할 수 있다. 또한, 뒤의 5.2에서 살펴보겠지만 ‘뚫’은 화자가 느끼거나 경험한 내용을 그것과 유사한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비유할 때에도 많이 사용된다.

3.2. 선행용언

여기에서는 ‘둥’/‘뚫’ 반복 구성체의 선행용언을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 3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둥’ 반복 구성체의 선행용언은 존재사 ‘있다’를 제외하면 모두 동사이다. ‘들다’나 ‘보다’와 같은 지각동사(知覺動詞)²³⁾, 그리고 ‘뜨다’나 ‘먹다’와 같은 행위동사(行爲動詞)²⁴⁾의 어간에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표 3. ‘등’ 반복 구성체의 선행용언

형태	선행용언 ²⁵⁾	종류수
‘-(으)ㄴ 등 만 등’	듣다[2], 맞다, 막히다, 보다, 열리다, 자다[2]	6종
‘-는 등 마는 등’	가다, 건너다보다, 꺾다, 굽히다, 다니다[3], 듣다[21], 들다[6], 들리다, 떠먹다, 뜨다[12], 마시다[2], 먹다[25], 묻다[2], 받다[5], 보다[8], 뵈다, 붙이다[3], 비비다, 숙제하다, 신다, 쓰다[2], 웃다, 읽다, 있다, 자다[5], 치르다, 하다[15]	27종
‘-(으)ㄴ 등 말 등’	닿다[2], 들리다, 보이다, 지키다	4종

아래의 표 4가 보여주듯이 ‘뚫’ 반복 구성체의 경우는 ‘들리다’나 ‘보이다’와 같은 피동(被動)의 지각동사의 어간에 결합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알다’와 같은 인식동사(認識動詞)²⁶⁾의 어간에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등’/‘뚫’ 반복 구성체에 내포된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에 따라 선행용언의 경향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으)ㄴ’ 혹은 ‘-는’을 내포한 ‘-(으)ㄴ 등 만 등’과 ‘-(으)ㄴ 뚫 만 뚫’ 그리고 ‘-는 등 마는 등’과 ‘-는 뚫 마는 뚫’의 경우는 타동사와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으)ㄴ’을 내포한 ‘-(으)ㄴ 등 말 등’과 ‘-(으)ㄴ 뚫 말 뚫’의 경우는 피동사와 자동사와 결합하는 경향이 보인다²⁷⁾.

표 4. ‘뚫’ 반복 구성체의 선행용언

형태	선행용언	종류수
‘-(으)ㄴ 뚫 만 뚫’	듣다, 보다[2], 붙이다, 신다, 입다, 하다	6종
‘-는 뚫 마는 뚫’	닿다, 듣다, 따라가다, 물리다, 받다, 쏘아 주다 ²⁸⁾ , 앓다, 오다[2], 움직이다, 웃다[4], 하다	12종
‘-(으)ㄴ 뚫 말 뚫’	꺼내다, 끊기다, 끊어지다, 끊이다[2], 나다[3], 날다, 닿다[7], 대다, 덮다[2], 돌아오다, 드러나다, 들리다[36], 떠오르다, 뜨이다, 말려들어 버리다, 맞부딪치다, 보이다[43], 비치다, 사다, 스치다, 알다[3], 알아듣다, 열다, 열리다, 오다, 웃다, 일어나다, 잡히다, 지다, 취하다, 타다, 퍼지다, 피다, 하다[3]	34종

23) 지각동사(知覺動詞)란 “감각기관을 통하여 외부의 사물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작용”의 뜻을 가진 동사를 말한다(Pak, 1996, p. 62).

24) 행위동사(行爲動詞)란 “유한하면서도 연속적인 움직임”을 뜻하는 동사이다(Pak, 1996, p. 69).

25) 표 3 및 표 4에서 선행용언 옆에 []로 표시한 숫자는 해당 선행용언의 사용 횟수를 의미하며 두 번 이상 사용된 경우에만 표기하였다.

26) 인식동사(認識動詞)란 “정서, 기억, 상상, 추리를 포함하는 지적 작용 동사”이다(Pak, 1996, p. 63).

27) 이러한 경향성에는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특성이 관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수집한 예문 개수가 많지 않았으므로 향후 검증하여 보고자 한다.

28) 수집한 예문 중에서는 ‘뚫’ 반복 구성체가 보조용언에 결합한 것도 있었다. 이 경우는 본용언에 보조용언이 결합한 형태로 기재하였다.

표 3과 표 4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둥’/‘뚫’ 반복 구성체는 형용사 및 지정사 어간에는 결합하지 않는다²⁹⁾. 이것은 ‘둥’/‘뚫’ 반복 구성체가 [추측]과 같은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의 의미를 표현하지 못함을 시사(示唆)한다. 뒤의 4.2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인식양태의 문법 형식은 상태성 용언에도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인식양태는 명제(proposition)의 진위성(眞僞性)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표현하기 때문에 명제의 의미 속성이 행위적이든 상태적이든 상관없다.

3.3. 기능

여기에서는 ‘둥’/‘뚫’ 반복 구성체의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양 구성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한 단서를 찾고자 한다.

아래의 표 5는 ‘둥’ 반복 구성체가 쓰인 예문 총 136개를 형태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둥’ 반복 구성체는 ‘이다’ 및 ‘하다’의 보어(complement)로 기능하는 경우, 부사어(adverbial)로 기능하는 경우, 연결형 어미(connective ending)처럼 기능하는 경우로 구분된다³⁰⁾.

표 5. ‘둥’ 반복 구성체의 기능

형태	기능별 구분	개수
‘-(으)ㄴ 둥 만 둥’	후행용언 ‘이다’의 보어로 기능하는 예	1개
	후행용언 ‘하다’의 보어로 기능하는 예	6개
	부사어로 기능하는 예	1개
‘는 둥 마는 둥’	후행용언 ‘이다’의 보어로 기능하는 예	1개
	후행용언 ‘하다’의 보어로 기능하는 예	67개
	부사어로 기능하는 예	37개
	연결형 어미처럼 기능하는 예	18개
‘-(으)ㄴ 둥 말 둥’	후행용언 ‘이다’의 보어로 기능하는 예	1개
	후행용언 ‘하다’의 보어로 기능하는 예	3개
	부사어로 기능하는 예	1개

29) 익명의 심사위원의 지적대로 형용사와 지정사는 행동 수행을 요구하는 ‘말다’의 특성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둥’/‘뚫’ 반복 구성체는 ‘(음악이) 들리다’나 ‘(산이) 보이다’처럼 행위주에 의한 자발적 행동 수행을 표현하지 않는 피동사에도 결합한다. 설령 ‘말다’의 특성 때문에 형용사와 지정사가 선행 제약을 받는다면 ‘들리다’나 ‘보이다’와 같은 피동사가 선행 제약을 받지 않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둥’/‘뚫’ 반복 구성체에 내포된 ‘말다’가 피동사와도 결합하는 것은 문법화(grammaticalization) 과정에서 ‘말다’의 통사적 특징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결과로 보인다.

30) 이번 조사에서는 ‘둥’ 반복 구성체가 연결형 어미처럼 기능하는 사례를 ‘는 둥 마는 둥’ 구성체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으)ㄴ 둥 만 둥’ 및 ‘-(으)ㄴ 둥 말 둥’ 구성체도 연결형 어미처럼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음을 기약한다.

아래의 예문 (9a)~(9c)가 보여주듯이 ‘등’ 반복 구성체는 지정사 ‘이다’의 보어로 기능할 수 있다.

- (9) a. 아들 청개구리는 들은 등 만 등이었습니다. (2BGXXX26)
b. 면 직원이 담배는 밖에 나가서 태우고 곧 교육 시작하니 앞좌석부터 채워
앉으라고 몇 번이나 목청을 높여도 듣는 등 마는 등이다.
(BRHO0424)
c. 사회자의 나중 말은 독백에 가까웠다. 들릴 등 말 등이었다.
(4BE94001)

또한 아래의 예문 (10a)~(10c)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등’ 반복 구성체는 ‘하다’의 보어로 기능할 때도 있다.

- (10) a. 마침 다방의 출입문이 요란하게 열리면서 비를 맞은 등 만 등한 사람들
서넛이 한 덩어리로 들어서고 있었다. (4BE01007)
b. 아침 식사도 하는 등 마는 등하고 사십리 길을 달려, 용담에 도착하여
스승께 인사를 올렸다. (2BH9625)
c. 조금 전부터 최이경의 코는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바로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목언저리에 닿을 등 말 등했다. (7BH02030)

한편 아래의 예문 (11a)~(11c)에서는 ‘등’ 반복 구성체가 후행용언의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이때 ‘등’ 반복 구성체로 표현되는 상황은 후행절 상황과 동일 장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예문 (11a)의 경우는 행위주가 ‘잔 등 만 등했던 상황’과 ‘새벽을 맞았던 상황’은 하나의 동일 장면에 귀속된다.

- (11) a. 작은 스튜디오에 대각선으로 군용 야전침대를 놓고 웅색하게 누워서 방
송 핑크 내는 꿈까지 꾸며 잔 등 만 등 새벽을 맞는다.
(BRHO0135)
b. 별장의 난간에 앉아 듣는 등 마는 등 모차르트를 듣고 있었던 것도 머릿
속을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4BE87001)
c. 노인네의 양쪽에서 곁불이 노릇을 하게 된 막둥이와 나도, 굳이 촌수를
따져 어렵게 셈을 한다면, 서로 보일 등 말 등 아득한 거리에서 한 방울쯤
피가 섞인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6BE00014)

그런데 ‘등’ 반복 구성체는 연결형 어미처럼 기능할 때도 있다. 예문 (12a)에서 ‘등’ 반복 구성체는 후행절의 상황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의 내용은 “뜨거운 아침밥을 건성으로 먹고 (그 후에) 아이들과 함께 학교로 가고 있었다”와 같이 해석된다. 예문 (12b)에서는 ‘등’ 반복 구성체의 상황과 후행절의 상황을 나열(羅列)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침은 조금 먹고 (그리고) 점심은 없는 날이 많았다”의 뜻으로 해석된다. 예문 (12a)와 (12b)의 ‘등’ 반복 구성체는 마치 연결형 어미 ‘-고’의 의미를 갖춘 것처럼 기능한다. 이것은 ‘등’의 본질에 기인한다. 2.1.1에서 확인하였듯이 ‘등’이 ‘-다는/나는/라는/자는 등 -다는/나는/라는/자는 등’ 구성체로 쓰이면 어떤 상황을 나열함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네가 옳다는 등 내가 옳다는 등 끝이 없었다”와 같은 문장의 경우 화자는 ‘네가 옳다’라는 상황과 ‘내가 옳다’라는 상황을 각각 별도로 인식한다. 이처럼 ‘등’은 선행 내용을 개별 상황으로 간주시킨다. 따라서 ‘등’ 반복 구성체는 후행절과 단절(斷絶)된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

- (12) a. 뜨거운 아침밥을 드는 등 마는 등 아이들과 함께 나는 십 리를 걸어서 학교로 가고 있었다. (4BG8802)
 b. 조반을 드는 등 마는 등 점심은 없는 날이 많았다. (2BEXXX11)

다음으로 ‘듯’ 반복 구성체를 포함한 예문 총 148개를 대상으로 형태와 기능별로 분류한 결과를 개관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 6이 보여주듯이 ‘듯’ 반복 구성체도 보어로 기능할 때와 부사어로 기능할 때로 구분된다.

표 6. ‘듯’ 반복 구성체의 기능

형태	기능별 구분	개수
‘-(으)ㄴ 듯 만 듯’	후행용언 ‘하다’의 보어로 기능하는 예	2개
	부사어로 기능하는 예	5개
‘는 듯 마는 듯’	후행용언 ‘하다’의 보어로 기능하는 예	6개
	부사어로 기능하는 예	10개
‘-(으)ㄴ 듯 말 듯’	후행용언 ‘하다’의 보어로 기능하는 예	52개
	부사어로 기능하는 예	73개

그런데 ‘듯’ 반복 구성체는 ‘등’ 반복 구성체와 달리 ‘이다’의 보어로 기능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의 예문 (13a)~(13c)는 모두 비문이 된다. ‘이다’는 명사나 대명사를 비롯한 체언과 결합하는 것이 보통이다³¹⁾. ‘이다’ 앞에 나타나지 못함으로 미루어보아 ‘듯’

31) 물론 ‘이다’가 ‘제법’이나 ‘먼저’ 등 일부 부사어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요리 솜씨가 제법이다”와 “건강이 제일 먼저이다”와 같은 문장에서 ‘제법’ 및 ‘먼저’는 체언과 비슷하게 기능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복 구성체는 부사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듯’ 자체도 ‘이다’ 앞에 나타나기 어렵다. ‘듯’은 “아픈 듯 얼굴을 찌푸렸다”처럼 수식을 받는 후행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듯’은 [유사함]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선행절의 상황과 후행절의 상황을 연계시키는 기능이 강하다. 따라서 (13a)~(13c)처럼 ‘듯’ 반복 구성체에 ‘이다’가 바로 후행하게 되면 연계되어야 하는 후행절 상황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³²⁾.

- (13) a. *아들 청개구리는 들은 듯 만 듯이었습니다. (非文)
 b. *면 직원이 담배는 밖에 나가서 태우고 곧 교육 시작하니 앞좌석부터 채워 앉으라고 몇 번이나 목청을 높여도 듣는 듯 마는 듯이다. (非文)
 c. *사회자의 나중 말은 독백에 가까웠다. 들릴 듯 말 듯이었다. (非文)

아래의 예문 (14a)~(14c)에서 제시하듯이 ‘듯’ 반복 구성체는 후행용언 ‘하다’의 보어로 기능한다. 이 점은 ‘둥’ 반복 구성체와 비슷하다.

- (14) a. 워낙 오래 전부터 한 듯 만 듯한 투명 화장만 해왔다. (3BB00D01)
 b. 그는 택시를 타고 들어갈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라는 그녀의 말을 듣는 듯 마는 듯했다. (BRE00303)
 c. 입에는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물고 있는데 나는 그 미소의 뜻을 짐작할 수 없다. (2CE00012)

아래의 예문 (15a)~(15c)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듯’ 반복 구성체도 ‘둥’ 반복 구성체와 마찬가지로 후행용언의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다.

- (15) a. 나는 의자에 엉덩이를 붙인 듯 만 듯 팔걸이만 죽어라 붙잡고 있었지요. (4BE00001)
 b. 그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대협은 웃는 듯 마는 듯 입가를 실룩거리며 말했었다. (5BE01013)
 c. 동자승은 들릴 듯 말 듯 가냘프게 사라져 가는 돌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도깨비를 불렀다. (BGXX0035)

32) ‘둥’ 반복 구성체가 예문 (9a)~(9c)와 같이 ‘이다’의 후행을 허용하는 것은 ‘둥’의 [어떤 사실]의 의미에 기인한 현상이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둥’에는 선행 내용을 개별 상황으로 간주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후행절 상황과의 연계성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둥’ 반복 구성체는 ‘이다’의 보어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런데 ‘듯’ 반복 구성체는 연결형 어미처럼 기능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의 예문 (16a) 및 (16b)는 어색하다. 이러한 점에서 ‘둥’ 반복 구성체와 기능적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위의 5.1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 (16) a. *뜨거운 아침밥을 드는 듯 마는 듯 아이들과 함께 나는 십 리를 걸어서 학교로 가고 있었다. (非文)
 b. *조반을 드는 듯 마는 듯 점심은 없는 날이 많았다. (非文)

4. 공통점

4.1. 긍정과 부정의 연결(連接)

‘둥’/‘듯’ 반복 구성체는 긍정과 부정을 연결(連接)하여 표현한다. 이때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선행용언의 종류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An(2001)에서는 아래의 예문 (17a)~(17c)를 보여주며 ‘둥’ 반복 구성체에 내포된 관형사형 어미가 ‘-(으)ㄴ’ 혹은 ‘-는’인 경우에는 [사실성]을 나타내고 ‘-(으)ㄹ’인 경우에는 [비사실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An(2001)의 견해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사실성]/[비사실성]이라는 용어 대신에 [실현]/[미실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³³⁾. ‘둥’/‘듯’ 반복 구성체가 [실현]/[미실현]의 의미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은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특성에 기인한다³⁴⁾.

예문 (17a) 및 (17b)에서는 ‘먹다’가 나타내는 행위가 소극적 태도로 실현되었음을 표현한다. 이에 반하여 (17c)에서는 해당 행위가 미실현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표현한다.

- (17) a. 그가 밥을 먹은 둥 만 둥 했다. (An, 2001, p. 160)
 b. 그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An, 2001, p. 160)
 c. 그가 밥을 먹을 둥 말 둥 했다. (An, 2001, p. 160)

‘듯’ 반복 구성체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아래의 예문 (18a)와 (18b)에서는 선행용언의 행위가 건성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실현]의 의미 특성을 갖는다. 한편 예문 (18c)에서는 ‘음악이 끊일 것처럼 느끼지만 아직까지는 끊이지 않았음’을 표현하

33) [사실성]/[비사실성]의 용어는 인식양태를 연상시키므로 적합하지 않다. ‘둥’/‘듯’ 반복 구성체는 인식양태와 무관한 문법 형식이며 어떤 상황의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표현하는 문법 형식이다.

34) 각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특성에 대하여는 위의 2.2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기 때문에 [미실현]의 의미 특성을 갖는다.

- (18) a. 젊은 여성들은 배꼽을 흰히 드러낸 채 속옷도 입은 듯 만 듯 도심을 활보하며 저만의 휴가를 보낸다. (7BB03B23)
 b. 그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대협은 웃는 듯 마는 듯 입가를 실룩거리며 말했었다. (5BE01013)
 c. 먼 데서 음악이 끓일 듯 말 듯 들리듯 말이죠. (CL00188)

그런데 ‘-(으)ㄴ 듯 말 듯’ 및 ‘-(으)ㄴ 듯 말 듯’ 구성체는 ‘들리다’나 ‘보이다’ 등 피동의 지각동사와 결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현]의 의미 특성을 갖게 된다³⁵⁾. 아래의 예문 (19a)에서는 ‘사회자의 나중 말이 들리기는 들렸음’을 표현하고, 예문 (19b)에서는 ‘미소가 보이기는 보였음’을 나타낸다.

- (19) a. 사회자의 나중 말은 독백에 가까웠다. 들릴 듯 말 듯 이었다. (4BE94001)
 b. 입에는 보일 듯 말 듯 한 미소를 물고 있는데 나는 그 미소의 뜻을 짐작할 수 없다. (2CE00012)

우선 ‘-(으)ㄴ 듯 만 듯’/‘-는 듯 마는 듯’ 및 ‘-(으)ㄴ 듯 만 듯’/‘-는 듯 마는 듯’ 구성체는 항상 [실현]의 의미를 나타내며 아래의 그림 1의 (유형 1)에 해당된다. ‘-(으)ㄴ 듯 말 듯’/‘-(으)ㄴ 듯 말 듯’ 구성체는 선행용언의 종류에 따라 (유형 2)와 (유형 3)으로 구분된다. (유형 2)는 [실현]의 의미를 나타내고, (유형 3)은 [미실현]의 의미를 나타낸다. 세 유형은 부정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공통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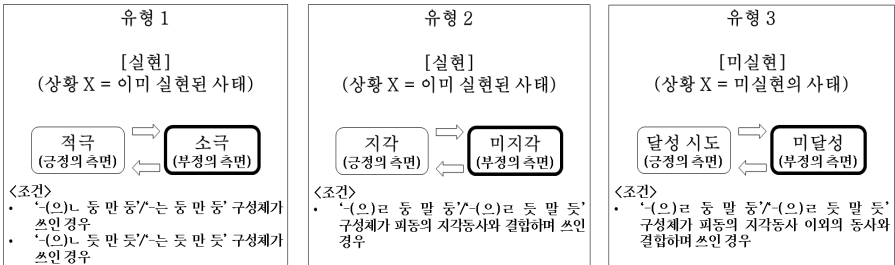


그림 1. ‘등’/‘듯’ 반복 구성체의 유형

35) 이와 비슷한 지적은 An(2001)에서도 있었지만 그는 ‘-(으)ㄴ 듯 말 듯’의 사례만 보여줄 뿐, ‘-(으)ㄴ 듯 말 듯’ 구성체에도 같은 현상이 있음을 언급하지 않았다.

(유형 1)의 경우 ‘-(으)ㄴ 등 만 등’/‘-는 등 마는 등’ 및 ‘-(으)ㄴ 듯 만 듯’/‘-는 듯 마는 듯’ 구성체의 선행용언이 표현하는 ‘상황 X’는 이미 실현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상황 X’을 성취(成就)하고자 하는 행위주(agent)의 적극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³⁶⁾. 따라서 (유형1)은 아래의 (20a)~(20d)와 같은 문맥에서 잘 쓰인다.

- (20) a. 몇 번이나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며 편치 못한 잠을 잔 등 만 등하고 눈을 떠보니까 긴긴밤도 흐지부지 흰히 밝았다. (BRE00336)
- b. 윤수는 인사를 받는 등 마는 등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해 보인 뒤 그 앞을 지나쳤다. (4BE01004)
- c. 찰리는 유리의 말을 들은 듯 만 듯 만사 귀찮은지 모래 위에 벌렁 눕더니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BRE00303)
- d. 가을은 이제 오는 듯 마는 듯 서성이다가 또 성큼 겨울로 접어들 게 틀림 없었다. (2CE00009)

(유형 2)의 경우 ‘-(으)ㄴ 등 말 등’/‘-(으)ㄴ 듯 말 듯’ 구성체가 피동의 지각동사와 결합함으로써 [실현]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피동주(patient)는 ‘상황 X’에 대하여 청각(聽覺)이나 시각(視覺) 등을 통하여 관찰 대상에서부터 발신되는 정보를 인식한다. 그런데 관찰 대상에서 발신되는 청각적 혹은 시각적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지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표현된다. 따라서 (유형 2)는 아래의 예문 (21a) 및 (21b)와 같은 문맥에서 잘 쓰인다.

- (21) a. 피아노 소리가 들릴 등 말 등 멀리에서 들려왔다. 친구 말로는 조금 전부터 계속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그때는 몰랐고 이제야 들렸다. (作例)
- b. 김수익씨는 보일 듯 말 듯 가늘게 한숨을 쉬고 눈길을 상섭이쪽으로 돌렸다. (2CE00015)

(유형 3)은 ‘-(으)ㄴ 등 말 등’/‘-(으)ㄴ 듯 말 듯’ 구성체가 피동의 지각동사가 아닌 기타 동사와 결합한 경우이다. 이때는 ‘상황 X’가 거의 성취될 뻔하였음을 표현한다.

36) 역명의 심사위원이 ‘적극’/‘소극’이라는 개념은 ‘긍정’의 의미역 내에서 정도의 차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예를 들어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공부하고 싶지 않아’와 같은 문장에서 ‘공부하다’라는 상황의 성취를 거부하는 행위주의 소극적인 태도는 부정 형태로 표현된다. 이렇듯 행위주의 소극적인 태도는 어떠한 상황의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유형 1)의 ‘등’/‘듯’ 반복 구성체는 이미 실현된 사태를 표현하기는 하나 ‘등1’/‘듯1’ 앞에 놓인 내용은 해당 사태를 성취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표현하는 반면 ‘등2’/‘듯2’ 앞에 놓인 내용은 해당 사태의 성취를 거부하는 소극성을 표현한다. 긍정의 의미역에 ‘적극’과 ‘소극’이 공존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아래의 예문 (22a) 및 (22b)와 같이 ‘상황 X’가 결국 달성하지 못함을 표현하는 문맥에서 잘 쓰인다.

- (22) a. 발바닥은 간질간질. 등 저 아래, 손이 닿을 듯 말 듯하는 부분에서 벼룩이 무는지 빈대가 방사를 하는지 근질근질하고. (BRE00090)
- b. 봄은 무엇을 하느라고 이렇게 녹장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 따뜻한 봄기로 그까짓 겨울 꼬리 하나 못 녹여 주나? 봄이 차지할 3월은 반도 더 어물어물 보내고도 아직까지 올 듯 말 듯 망설이는 봄은 어쩌면 겁쟁이인지 몰라. (BRGO0360)

(유형 1)~(유형 3)의 공통적 특징은 부정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긍정의 측면을 표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래의 예문 (23a)~(23c)처럼 일정한 기간 혹은 빈도를 표현하는 부사어와 잘 쓰인다. 이때 ‘상황 X’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 (23) a. 워낙 오래 전부터 한 듯 만 듯한 투명 화장만 해왔다. (3BB00D01)
- b. 데모 행렬에 한 번도 낀 적조차 없지만 4년 내내 최후탄 연기 속에서 학교를 다니는 등 마는 등 그저 불행했던 그 시절의 나는 누구였을까? (5BA01B10)
- c. 어디선지는 몰라도 가느다랗게 흐느끼는 소리도 이따금씩 끓길 듯 말 듯 들려왔다. (4BB97I04)

4.2. 비양태성

Im(2020)에 의하면 ‘등’ 반복 구성체는 [불확실(불안정)]을 표현하고 ‘듯’ 반복 구성체는 [불확실(추측)]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 견해는 ‘등’/‘듯’ 반복 구성체를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³⁷⁾를 나타내는 문법 형식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본고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아래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첫째, 위의 3.2에서 살펴보았듯이 ‘등’/‘듯’ 반복 구성체는 형용사 및 지정사의 어간에 결합하지 않는다. 아래의 예문 (24a)~(24c)가 보여주듯이 보통 인식양태의 문법 형식들은 선행용언의 종류에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결합 관계를 형성한다. 이것은 명제(proposition)의 진위성(眞僞性)에 대하여 화자의 주관에 따라 판단한다는 인식양태의

37) Palmer(2001)에 따르면 양태의 작용 대상에는 명제(proposition)와 사건(event)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하였다. 명제는 진위(眞僞) 판정의 대상이 되지만 사건은 그렇지 않다. 인식양태란 명제를 대상으로 기능하며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명제 내용의 개연성(蓋然性)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질적 기능과 관련된다. 진위 판정의 대상이 된다면 해당 명제가 행위를 언급하는 것이든 상태를 언급하는 것이든 상관이 없다. 따라서 인식양태의 문법 형식은 모든 용언의 어간에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둥’/‘뚫’ 반복 구성체는 인식양태의 문법 형식과 다르다.

- (24) a. 예컨대 슈퍼미꾸라지는 보통미꾸라지보다 40배 이상 많은 고기를 생산하지만 보통미꾸라지보다 40배 많은 사료를 먹을 것이다. (4BB98I06)
 b. 환자가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라면 아마도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연관이 많을 것이다. (7BH03023)
 c. 아마도 과학서적과 법조문은 리듬의 영양을 가장 철저히 배격한 산문일 것이다. (BRHO0128)

둘째, ‘둥’/‘뚫’ 반복 구성체는 [추측]의 의미와 관련된 부사어인 ‘아마’나 ‘틀림없이’ 등과 공기(共起)할 수 없다. 아래의 예문 (25a)와 (25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식양태의 문법 형식들은 부사어 ‘아마’ 또는 ‘틀림없이’와 자연스럽게 공기한다. 그러나 예문 (25c)와 (25d)의 ‘둥’/‘뚫’ 반복 구성체는 이들 부사어와 공기할 수 없다³⁸⁾. 이러한 차이는 ‘둥’/‘뚫’ 반복 구성체가 인식양태의 문법 형식이 아님을 의미한다.

- (25) a. 아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가 아직 안 들어온 모양입니다. (CG000035)
 b. 틀림없이 그는 알고 있을 것이다. (CE000028)
 c. *아마 비가 {온 둥 만 둥/오는 둥 마는 둥/을 둥 말 둥/온 뚫 만 뚫/오는 뚫 마는 뚫/을 뚫 말 뚫}한다. (非文)
 d. *틀림없이 비가 {온 둥 만 둥/오는 둥 마는 둥/을 둥 말 둥/온 뚫 만 뚫/오는 뚫 마는 뚫/을 뚫 말 뚫}한다. (非文)

셋째, ‘둥’/‘뚫’ 반복 구성체는 ‘하다’의 보어로서 기능할 때에 [추측]을 표현하는 문법 형식의 후행을 허용한다. 아래의 예문 (26a)~(26c)가 보여주듯이 [추측]을 표현하는 ‘-(으)ㄴ 것이다’가 후행하여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성립한다. ‘*-(으)ㄴ 모양일 것이다’나 ‘*-(으)ㄴ 터일 것이다’ 등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형식간의 연쇄는 허용되지

38) 익명의 심사위원이 예문 (25c)와 (25d)에서 ‘한다’를 ‘할 것이다’로 대치시키면 문법성 판단이 향상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와 ‘틀림없이’가 [추측]을 표현하는 ‘-(으)ㄴ 것이다’와 잘 공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필자는 예문 (25c)와 (25d)를 통하여 ‘둥’/‘뚫’ 반복 구성체 자체에는 인식양태적 기능이 없음을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만약 ‘둥’/‘뚫’ 반복 구성체에 인식양태적 기능이 있다면 ‘-(으)ㄴ 것이다’를 후행시키지 않아도 정문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서술어를 대상으로 두 개 이상의 인식양태의 문법 형식이 작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³⁹⁾. 만약에 ‘등’/‘دت’ 반복 구성체를 인식양태의 문법 형식으로 보게 된다면 예외적 현상으로 간주될 것이지만 본고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

- (26) a. 무더운 밤에 에어컨도 없는 방에 있었다면 {잔 등 만 등/잔 듯 만 듯}했을 것이다. (作例)
 b. 그가 버릇없는 사람이라면 인사도 {받는 등 마는 등/받는 듯 마는 듯}할 것이다. (作例)
 c. 오늘은 눈이 {올 등 말 등/올 듯 말 듯}할 것이다. (作例)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دت’ 반복 구성체에는 인식양태의 문법 형식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으로 미루어보아 ‘등’/‘دت’ 반복 구성체는 인식양태와 무관한 문법 형식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⁴⁰⁾.

아래의 그림 2는 Halliday & Matthiessen(2004)에서 제시된 것이다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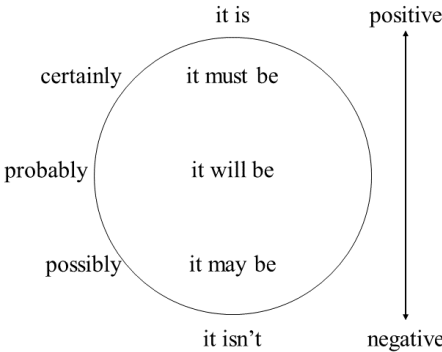


그림 2. 인식양태와 긍정/부정의 관계(Halliday & Matthiessen, 2004, p. 619)

39) 유형론(typology)의 관점에서 한국어의 복합 양태 구성체(multiple modal constructions)를 다룬 선행연구로 Nauze(2008)가 있다. Nauze(2008)에 따르면 한국어에는 참여자 내적 양태(participant-internal modality)와 참여자 외적 양태(participant-external modality)의 연쇄, 참여자 내적 양태와 인식양태의 연쇄, 참여자 외적 양태와 인식양태의 연쇄가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 내적/외적 양태란 사건을 대상으로 기능하는 양태의 하위 범주 중 하나이며 사건 성립을 위한 요인(factor)이 행위주에 내재(內在)/외재(外在)함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Takachi(2021)에서는 인식양태의 문법형식 간의 연쇄 사례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쇄는 지나친 중첩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40) ‘등’/‘دت’ 반복 구성체에 내포된 관형사형 어미들은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선행 용언에 [현실/비현실]의 의미 특성을 가미(加味)할 뿐, ‘등’/‘دت’ 반복 구성체가 인식양태의 문법 형식으로 기능하기 위한 역할까지는 하지 않는다.

41) Halliday & Matthiessen(2004)에서 제시되었던 원래의 그림에는 빈도성(usuality)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빈도성은 본고의 내용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림 2에는 실지 않았다.

인식양태는 긍정/부정을 제외시킨 중간영역(the region of uncertainty that lies between 'yes' and 'no')을 표현한다. 그림 2에서 원(圓) 안쪽 부분은 'it must be/it will be/it may be'와 같이 양태 조동사(modal verbs)로 표현되는 [확신(certainly)]/[개연(probably)]/[가능(possibly)]의 의미 영역을 말하며 '진실'도 '거짓'도 없고 단지 진위성의 높낮이만을 따지는 내용만이 있다. 이 원은 긍정을 표현하는 'it is'와 부정을 표현하는 'it isn't'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영역이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사실도 거짓도 아닌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 인식양태의 본질적 특성이다. 따라서 인식양태의 문법 형식은 진위성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부사어 '아마' 또는 '틀림없이'와 공기가 가능한 것이다.

긍정/부정은 명제 내용을 사실과 거짓 중 어느 한쪽에 귀속시키므로 '점(點)적'으로 명제를 평가한다. 이에 비하여 인식양태는 명제 내용의 진위성의 높낮이를 표현하기 때문에 '선(線)적'으로 평가한다. 환언하자면, 긍정/부정은 '범주적'이지만 인식양태는 '척도(尺度)적' 개념 체계이다.

'동'/'듯' 반복 구성체는 긍정과 부정을 연결시켜 동시에 표현한다. 따라서 긍정과 부정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영역을 언급하지 않는다. '동'/'듯' 반복 구성체가 진위성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부사어('아마'나 '틀림없이')와 공기하지 못하는 것도 긍정과 부정 사이의 중간영역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긍정의 범주와 부정의 범주를 되풀이하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범주적 개념 체계에 기반을 둔 문법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동'/'듯' 반복 구성체를 인식양태로 다루었다. 그러나 그것은 긍정/부정을 동시에 표현하는 '동'/'듯' 반복 구성체의 의미를 확대해석한 결과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동'/'듯' 반복 구성체는 명제 내용의 진위성을 언급하기 위한 기능은 하지 않으며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5. 차이점

5.1. 상황적 연계성

'동' 반복 구성체와 '듯' 반복 구성체 간의 차이점 중 하나는 '상황적 연계성(situational relevancy)'의 여부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황적 연계성이란 두 개의 상황 간의 내용적 관련성을 의미한다. '동' 반복 구성체는 후행절과 연계성이 없는 상황을 표현할 수 있지만, '듯' 반복 구성체는 그렇지 않다. '동'/'듯' 반복 구성체가 이끄는 부사절의 내용을 '상황 X'라고 하고 후행절의 내용을 '상황 Y'라고 하자. '동' 반복 구성체가 쓰인 아래의 예문 (27a)와 (27b)에서는 '상황 X'와 '상황 Y'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단절된 관계에 있다. 두 상황은 서로 다른 장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아무런 상황적 연계성이 없다. 이러한 특징은 '듯' 반복 구성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예문 (27a)와

(27b)의 ‘둥’을 ‘뚫’으로 대치시킨 예문 (27c)와 (27d)는 비문이 된다.

- (27) a. 사또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이내 그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3BG200007)
b. 조반을 뜨는 둥 마는 둥 상현은 하숙을 나왔다. (BEXX0004)
c. *사또는 밥을 먹는 뚫 마는 뚫 이내 그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非文)
d. *조반을 뜨는 뚫 마는 뚫 상현은 하숙을 나왔다. (非文)

그렇다면 ‘뚫’ 반복 구성체가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구성체는 ‘상황 X’와 ‘상황 Y’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아래의 예문 (28a)~(28c)에서 볼 수 있듯이 ‘상황 X’는 ‘상황 Y’에 부대(附帶)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뚫’ 반복 구성체가 쓰인 문장에서는 ‘상황 X’와 ‘상황 Y’는 절대로 단절할 수 없는 동일 장면에 존재하여야 한다.

- (28) a. 나는 의자에 엉덩이를 붙인 뚫 만 뚫 팔걸이만 죽어라 붙잡고 있었다.
(4BE00001)
b. 하늘에서는 눈이 오는 뚫 마는 뚫 내리고 있었다. (2BEXXX20)
c. 일어날 뚫 말 뚫 엉거주춤 앉아서 계속 걷어 채였다. (7BH00029)

‘둥’/‘뚫’ 반복 구성체 간의 이러한 차이는 문장에서 발휘하는 기능과 밀접히 연관된다. 위의 3.3에서 살펴보았듯이 ‘둥’ 반복 구성체는 연결형 어미처럼 기능할 때도 있지만 ‘뚫’ 반복 구성체는 그렇지 않다. ‘하다’의 보어로 기능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뚫’ 반복 구성체는 반드시 부사어로 기능한다. ‘뚫’ 반복 구성체의 이러한 기능적 제약은 후행절과 내용 면에서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미적 제약과 합치(合致)된다.

그러나 아래의 예문 (29a)와 (29b)에서 알 수 있듯이 ‘둥’ 반복 구성체는 ‘상황 X’와 ‘상황 Y’가 연계적 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쓰일 수 있다. 2.1.3에서 살펴보았듯이 ‘둥’에는 [유사함]의 의미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상황X’와 ‘상황Y’를 유사 관계로 연계시키는 기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a, 29b)가 정문으로 성립하는 것은 단지 이때의 ‘상황X’와 ‘상황Y’가 동일 장면에 귀속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뚫’ 반복 구성체는 상황적 연계성을 필수로 요구한다. ‘뚫’은 [유사함]의 의미를 가지며 두 개의 상황을 동일 장면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유사 관계로 연계시킨다.

- (29) a. 작은 스튜디오에 대각선으로 군용 야전침대를 놓고 웅색하게 누워서 방송
핑크 내는 꿈까지 꾸며 잔 둥 만 둥 새벽을 맞는다. (BRHO0135)

- b. 한국의 산야의 돌부처들은 대개가 웃는 둥 마는 둥 미소짓고 있다.

(7BH03006)

5.2. 비유의 용법

‘دت’ 반복 구성체에는 비유의 용법이 있지만 ‘둥’ 반복 구성체에는 그러한 용법이 없다. 비유에는 직유(simile), 은유(metaphor), 제유(synecdoche), 환유(metonymy)가 있는데, ‘دت’ 반복 구성체는 직유의 유표적(marked) 조사인 ‘-처럼’과 공기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 (30a)에서는 ‘(들릴 듯 말 듯한) 울음소리’를 ‘(끓일 듯 말 듯한) 혼곤한 빛’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دت’ 반복 구성체인 ‘끓일 듯 말 듯’ 부분은 ‘혼곤한 빛’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화자가 실제로 지각(知覺)하며 관찰한 것은 ‘울음소리’이지만 그것을 ‘혼곤한 빛’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즉, ‘울음소리’와 ‘혼곤한 빛’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문 (30b)에서는 ‘사랑의 감정’을 ‘(꺼질 듯 말 듯한) 모닥불’로 비유하며 표현하고 있다.

- (30) a. 양순이 누님의 얼굴을 떠올리자. 바로 얼굴 전체에 어린 그 혼곤한 빛처럼 끓일 듯 말 듯, 있는 듯 없는 듯 실낱 같은 무슨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7BE03005)
- b. 희미한 모닥불처럼 꺼질 듯 말 듯 내 가슴 속에 남은 사랑의 감정도 그러했다. (作例)
- c. 양순이 누님의 얼굴을 떠올리자. *바로 얼굴 전체에 어린 그 혼곤한 빛처럼 끓일 둥 말 둥, 있는 듯 없는 듯 실낱 같은 무슨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非文)
- d. *희미한 모닥불처럼 꺼질 둥 말 둥 내 가슴 속에 남은 사랑의 감정도 그러했다. (非文)

그런데 예문 (30a) 및 (30b)의 ‘دت’ 반복 구성체를 ‘둥’ 반복 구성체로 대치시킨 예문 (30c) 및 (30d)는 모두 비문이 된다. 이것은 의존명사의 의미 특성에 기인한다. 2.1.1 및 2.1.2에서 An(2001)과 I(2009)의 견해를 살펴보았듯이 ‘둥’의 원형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고, ‘دت’의 원형적 의미는 [유사함]이다. 이러한 의존명사 간의 의미 특성 차이 때문에 용법에도 차이가 생긴다. ‘둥’ 반복 구성체는 화자가 지각하며 관찰한 것을 그대로 표현한다. ‘دت’ 반복 구성체도 화자가 지각하며 관찰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처럼’과 같은 직유의 유표적 언어 형식과 공기한 경우에는 비유적으로 표현된다.

‘دت’ 반복 구성체가 비유의 용법으로도 쓰이는 것은 ‘دت’ 반복 구성체의 ‘연계성’ 특

성과 관련이 있다. 5.1에서 살펴보았듯이 ‘덧’ 반복 구성체는 ‘상황 X’와 ‘상황 Y’가 같은 장면에 존재함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예문 (30a) 및 (30b)에서 ‘상황 X’는 ‘상황 Y’를 다른 말로 바꾸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때 ‘상황 X’와 ‘상황 Y’는 의미 차원에서 유사 관계를 이룬다. 즉, ‘상황 X’와 ‘상황 Y’는 연계적 관계를 형성하며 같은 상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덧’ 반복 구성체에는 비유의 용법이 있으나 ‘상황 X’와 ‘상황 Y’가 단절된 관계일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둥’ 반복 구성체에는 비유의 용법이 없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근거로 ‘둥’/‘덧’ 반복 구성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둥’/‘덧’ 반복 구성체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성체	긍정과 부정의 연접	양태성	상황적 연계성	비유 용법
‘둥’ 반복 구성체	○	×	△ ⁴²⁾	×
‘덧’ 반복 구성체	○	×	○	○

6.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의존명사 ‘둥’/‘덧’의 의미를 근거로 ‘둥’/‘덧’ 반복 구성체 간의 차이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르다. An(2001) 및 I(2009)에서는 의존명사 ‘둥’/‘덧’의 의미에 대하여 논의된 바가 있었고 두 의존명사 간의 의미 차이가 밝혀졌다. ‘둥’은 [어떤 사실]을 표현하고 ‘덧’은 [유사함]을 표현한다. 본고에서는 의존명사 ‘둥’/‘덧’의 용법적 차이를 주목함으로써 이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 특성을 표현함을 확인하였다. ‘둥’은 선행 내용을 하나의 개별적 상황으로 간주시키는 반면, ‘덧’은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을 연계시켜 유사 관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 차이를 근거로 ‘둥’/‘덧’ 반복 구성체 간의 차이점을 논의한 선행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본 연구는 ‘둥’/‘덧’ 반복 구성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이들의 구성 요소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구조적으로 보면 ‘둥’/‘덧’ 반복 구성체는 관형사형 어미와 용언 ‘말다’를 내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내포된 의존명사가 다르다는 점에서 변별

42) ‘둥’은 선행 내용을 하나의 개별적 상황으로 간주시키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후행 내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둥’ 반복 구성체는 후행 내용과의 상황적 연계성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문 (29a, 29b)와 같이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이 동일 장면에 귀속된 경우에는 의사(擬似)적으로 상황적 연계성이 생긴다.

적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에 기반을 두며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근거로 ‘둥’/‘뚫’ 반복 구성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둥’/‘뚫’ 반복 구성체는 관형사형 어미의 유형에 따라 [실현]/[미실현]의 의미 특성을 갖게 된다. ‘-(으)ㄴ 둥 만 둥’/‘-는 둥 마는 둥’ 및 ‘-(으)ㄴ 뚫 만 뚫’/‘-는 뚫 마는 뚫’ 구성체는 행위주의 소극적 태도가 보이는 하지만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함의한다는 점에서 [실현]의 의미 특성을 가진다. 한편 ‘-(으)ㄴ 둥 말 둥’ 및 ‘-(으)ㄴ 뚫 말 뚫’ 구성체는 어떠한 상황이 거의 이루어졌으나 미달성에 그쳤음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미실현]의 의미 특성을 가진다. 이것은 [현실]의 의미를 가진 ‘-(으)ㄴ’ 및 ‘-는’과 [비현실]의 의미를 가진 ‘-(으)ㄴ’에 기인한 현상이다. 그러나 ‘-(으)ㄴ 둥 말 둥’ 및 ‘-(으)ㄴ 뚫 말 뚫’ 구성체가 피동의 지각동사와 결합한 경우에는 피동주가 어떠한 상황을 간신히 지각하였음을 함의한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실현]의 의미 특성을 가진다.

둘째, ‘둥’/‘뚫’ 반복 구성체는 ‘둥1’/‘뚫1’ 앞에 놓인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둥2’/‘뚫2’ 앞에 놓인 ‘말다’가 나타난다. 이 때문에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상 긍정과 부정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영역(‘진실’도 ‘거짓’도 아닌 영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므로 비양태성의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둥’/‘뚫’ 반복 구성체는 진위성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부사어와 공기하지 못한다는 통사적 제약을 가진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차이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둥’ 반복 구성체는 후행절의 상황과 단절된 상황을 표현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결형 어미처럼 기능할 수 있다. 한편 ‘뚫’ 반복 구성체는 후행절의 상황과의 연계성을 필수로 요구한다. ‘뚫’ 반복 구성체의 상황은 후행절의 상황에 부대하 한 위의 상황이다. 즉, 부사어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다’의 보어로 기능할 수 없다.

둘째, ‘뚫’ 반복 구성체에는 비유의 용법도 있다. 이 용법은 상황적 연계성과 관련이 있다. 비유의 용법으로 사용되면 ‘뚫’ 반복 구성체가 표현하는 상황은 후행절의 상황과 내용 면에서 유사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두 상황은 하나의 장면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며 두 상황 사이에는 상황적 연계성이 확립된다. 한편 ‘둥’은 선행 내용을 개별적이고 단절된 상황으로 간주시키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둥’ 반복 구성체에는 비유의 용법이 없다.

위와 같은 차이점은 의존명사 ‘둥’/‘뚫’의 기본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References

- An, H. K. (2001). *Hyen-tay-kwuk-e-uy uy-con-myeng-sa yen-kwu* (in Korean), Seoul: Yeklak.
Chang, H. C. (2003). The meanings and uses of ‘Mal-ta’. *Korean Linguistics*, 20, 221-239.

- Chang, K. H. (1985). *Hyen-tay-kwuk-e-uy yang-thay pem-cwu yen-kwu* (in Korean). Seoul: Thapchwulphansa.
- Halliday, M. A. K. & Matthiessen, C. M. I. M.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3rd edition]*, London: Hodder Education.
- Han, K. (2009). A study on the peptitional bound nouns in Korean (in Korean). *Korean Studies Quarterly*, 32(2), 59-80.
- I, C. H. (2009). *Han-kwuk-e uy-con myeng-sa yen-kwu* (in Korean), Seoul: Hankwukmwunhwa-sa.
- I, H. S. (1995). A multi-perspective analysis of the temporal system in Korean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0, 207-250.
- I, I. S. & Chay, W. (1999). *Kwuk-e-mwun-pep-lon-kang-uy* (in Korean), Seoul: Hakyensa.
- I, K. H. (2001). *Kwuk-e-mwun-pep-uy i-hay Vol. 2* (in Korean), Seoul: Thayhaksa.
- Im, C. S. (2020). A study on repetitive constructions of 'Malda' in a negative sense in Korean Education (in Korean). *The Journal of Language and Literature*, 81, 413-444.
- Im, K. S. (2008). On the relation between grammatical collocation and grammaticalizatio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51, 115-147.
- Im, T. H. (2008). The mood and modal systems in Korean (in Korean). *Korean Semantics*, 26, 211-249.
- Ko, Y. K. (2007). *Han-kwuk-e-uy si-cey se-pep tong-cak-sang* (in Korean), Seoul: Thayhaksa.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1). *Korean National Corpus in the 21st century Sejong Project* (2011.12. Revised edition).
- Nakajima, H. (2002). Ha-n; the Verb's Adnominal Form in Modern Korean (in Japanese). *Chosen Gakuho*, 183, 23-50.
- Nam, K, S. (2001). *Hyen-tay kwuk-e thong-sa-lon* (in Korean), Seoul: Thayhaksa.
- Nam, K. S. & Ko, Y, K. (1993). *Phyo-cwun kwuk-e-mwun-pep-lon* (in Korean), Seoul: Thapchwulphansa.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Online). <https://stdict.korean.go.kr>
- Nauze, F. D. (2008). *Modality in typological perspective*. ILLC Dissertation Series DS-2008-08, Institute for Logic, Language and Computation, Universiteit van Amsterdam.
- Pak, T. Y. (1996). The features and classification of the verbal forms in Korean language (in Korea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6:7, 53-90.
- Palmer, F. R. (2001). *Mood and modality [2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y, C. Y. (2001). A study on the tense of adnominal clause in contemporary Korean (in Korean). *Bilingual Research*, 18, 141-164.
- Se, C. S. (1996). *Kwuk-e-mwun-pep* (in Korean), Seoul: Hanyang University Press.
- Takachi, T. (2021). A theory of modality in modern Korean: With special reference to modal grammatical collocations (in Japanese). *Korean Linguistic Research: Proceedings of descriptive studies on Modern Korean Grammar*, 125-366, Tokyo: Sanshusha.

Yem, S. M. (1995). The Aspect and Tense in Korean (in Korean). *Journal of the Humanities*, 17, 1-19.

Tomonari Takachi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oreign Language
Tenri University
1050, Somanouchi, Tenri, Nara 632-8510, Japan
E-mail: t-tomo@sta.tenri-u.ac.jp

접수일자 : 2021. 10. 5

수정본 접수 : 2022. 3. 16

게재결정 : 2022. 4. 21